

자영업자·위기계층에 351억 지원

광주시, 추석 앞두고 민생안정 대책 발표

상생카드 사용 시 1인당 10만원 지급도

광주시와 자치구가 추석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각계각층을 망라해 12만 1,000여명에게 351억원을 지원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14차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장기화 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와 위기계층을 찾아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는데 방점을 뒀다.

사회복지·아동 시설 방역물품(21억 7,000여만 원), 장애인 등 위기 계층 생계안정 자금(106억 7,000만 원), 집합금지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222억 8,000만 원) 등 3개 분야에 걸쳐 26개 사업을 펼친다. 대상자는 12만 1,891명이며, 351억 원(5개 자치구 31억 원 부담)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장기요양 시설 1,108곳에 마스크와 소독제 등 방역 물품 구매비로 30만~100만 원을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48개 아동복지 시설에 100만~200만 원씩,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이용시설 310곳에 50만 원씩, 1,004개 어린이집에 100만 원씩 지급한다.

결혼식장 16곳과 장례식장 32곳에 100만 원씩 지급하고, 일반음식점 등 2만 3,000여개 업체에 보건마스크를 지원한다.

위기 계층의 생계안정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등록 장애인 7만여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문화예술활동가 2,200여명에게

50만씩 지원하기로 했다.

동학용 지입 차량과 전세 마을버스 운전자에게 80만 원,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법인·개인택시 기사 700명에게 50만 원씩 지원한다.

임신부 6,000여명에게는 30만 원씩, 저소득층 추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부모가족 1,300명에게는 10만 원씩, 소년·소녀 가정에는 1인당 30만 원을 지

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도 돕는다.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장기간 집합 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졌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홀덤펍 1,124곳에 각각 150만 원을 지급한다. 학원, 독서실, 스튜디오카페 등 5,100여 곳에는 50만 원씩 주어진다.

국제결혼 중개업체(20곳)와 여행업체(437곳), 마을버스(5곳)·전세버스 운송업체(24곳)에 대해 100만 원씩 지원한다.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가 큰 노래연습

장, 성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실내 체육시설, 파티룸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 50만 원씩 지원한다.

지역 소비축진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광주상생카드를 사용할 경우 한 달에 1인당 10만 원(사용액의 10%, 100만 원 한도)을 지원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 제한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더 비상한 각오로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아 시민 안전을 지켜내면서도 고통을 덜어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농협, 코로나19 기부물품 전달

이용섭 광주시장이 2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강형구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장으로 부터 코로나19 기부물품을 전달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오늘 온라인 명랑대접축제 개막

도·해남·진도 주관… ‘불멸의 명랑 호국의 울돌목’ 주제

호국역사문화 축제인 2021 명랑대접축제가 코로나19 극복의 화령 메시지를 담아 3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전남도와 해남군, 진도군이 공동 주관하는 명랑대접축제는 ‘불멸의 명랑! 호국의 울돌목!’이란 주제로 진행하며, 공식 유튜브 채널인 ‘명랑대접축제TV’를 통해 매일 오후 2시 송출한다.

올해 축제에선 코로나19 극복 메시지와 희망을 전달하는 비대면 축제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색다르고 독특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참여자에게 재미와 감동

을 전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명랑해전 AR체험’은 명랑대접 현장인 울돌목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1597년 정유년 승리의 감동을 그대로 담은 증강현실 명랑해전을 볼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명랑대접축제 누리집(www.mldc.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축제 첫날인 3일 명랑대접의 의미를 담은 주제 영상을 시작으로 청소년 명랑 가요제, 틱톡 챌린지, 랜선 투어, 퀴즈 열

전, 조선수군 무예대회, 이순신 가무악이 펼쳐진다.

둘째날인 4일 해전재현 영상과 공군 에어쇼, 해상 퍼레이드, 평화의 현화를 담은 축제의 백미인 출정식과 울돌목 온에어 공개방송, 지역민이 참여한 화오리 명랑 노래방을 진행한다.

출정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성일 도의회 부의장, 이종천 이순신 장군 후손, 명현관 해남군수, 이동진 진도군수, BH 이경운 문화비서관 등이 참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에 맞춰 최소 인원만으로 치른다.

또한 다양한 농수특산물 대박 할인제품

을 지역 소품몰인 남도장터, 해남미소, 진도 아리랑몰을 통해 구매하는 ‘라이브 커머스’도 이어진다.

마지막날인 5일 진도 군립민속예술단이 출연하는 남도 민속여행과 인플루언서 랜선 투어, 유튜브 콘서트 등이 마련됐다.

모든 프로그램은 철저한 방역지침을 지키는 가운데 진행된다.

“명랑대접축제TV” 채널 구독 및 출정식 시청 이벤트, 실시간 댓글 이벤트 등 축제 참여자에게는 다양하고 푸짐한 경품 혜택을 제공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MZ세대가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누구나 즐기는 힐링 축제로 준비했다”며 “필수적 생필생축사의 이충무공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호국역사문화 축제로서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길용현 기자

“차기정부, 균형발전 제1과제로”

김영록 지사, 전남부처 신설 주장

김영록 전남지사(사진)는 2일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의제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 제1정책 과제로 삼아 부총리급의 가장 국가균형발전부를 전남 부처로 신설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9월 정례회에서 “균형발전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제인데도 불구하고 어렵기 때문에 자주 늦어진 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경제를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 지방은 힘을 펼 수가 없을 것”이라며 “전국가적인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불균형 발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의 두 가지 핵심 기조로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 개발을 꼽았다.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관련해선 “그동안 경북도와 손잡고 ‘지방소멸위기 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전국 농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협력하는 등 전방위노력을 기울였다”



일보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정부가 긍정적 신호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므로, 경북과 전북, 강원 등과 광역 협력을 통한 보다 강력한 대응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역 개발에 대해 김 지사는 “전남이 주도해서 추진하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은 광주와 부산, 울산, 경남 등 남부권 5개 시·도를 중심으로 광역관광권을 형성해 남해안 관광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는 것”이라며 “이같은 협력체계가 관광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 분야로까지 확대해 강력한 초광역협력사업으로 추진, 진정한 균형발전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도, 비교우위 연관산업 유치 잇따라

식품가공·특장차 등 6개 기업과 508억 협약

전남도는 5개 시군과 협력해 지역 비교우위 연관산업 6개 기업과 508억 규모의 서면 투자협약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별로 함평에 2개 기업, 순천·나주·광양·장흥에 각 1개 기업이 투자하며, 179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도이프는 순천 해룡산단에 90억 원을 투자해 치과용 임플란트 의료기기 생산공장을 신설하고 미국 시장을 겨냥한다.

㈜웰텍과 ㈜그린오토텍은 각각 51억 원, 31억 원을 들여, 자동차 연관산업 기업으로부터 인기가 높은 합평 빛그린 국가산단에 기아자동차에 납품할 특장차제

작공장을 신설한다.

㈜지운은 나주 신도산단에 지역특화산업인 나주배 수출 포장용 등에 활용할 골판지 상자 제조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31억 원을 투자한다.

㈜성원은 280억 원을 투입해 광양 초남 공단에 스테인리스 용접강관 제품 품질과 가격경쟁력에 중점을 둔 생산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세계무역은 장흥 바이오산단에 25억 원을 투자한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 가공공장을 신설해 수출 전문기업으로 발전한다는 목표다. /길용현 기자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영상 제작

광주시와 대구시는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사업’ 추진을 기념해 ‘당신에게 대구(광주)란?’ 영상을 제작, 지난달 27일부터 양 도시 유튜브 공식 채널 ‘빛튜브’와 ‘컬러풀대구TV’를 통해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영상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에 맞춰 발전방향 등을 영

상으로 광주시와 대구시가 공동기획·제작했다.

영상에서는 지역민이 추천하는 관광지, 음식 등 그동안 지역 간 교류가 적었지만 달빛고속철도 개통 후 이동 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들면 자주 방문하고 싶다 등 양 도시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답변이 많았다. /황애란 기자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광고·영양·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1000@hanmail.net

지치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시사매거진

월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본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할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피스 상담◀

호남지사 062-417-4717 / 010-4675-6324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질병관리청

봄바람, 코골을 간질여도
머리 두기를 합니다
기다렸던 예방접종이 시작되어도
마스크를 씁니다

#우린 #방역에진심인편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